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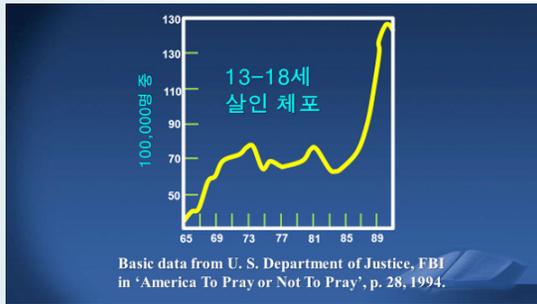


사회적
진화론 6
(Social
Evolutionism)

학교 폭력과 살인

앞선 뉴스레터에서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킨 극단적인 예로 우생학과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나치, 히틀러 등을 다루었다. 여기서 끔찍한 국가적, 사회적 공조가 가능했던 것은 진화론에 대한 각 개인의 신뢰와 교과서를 통한 진화론의 보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그때와 다름없이 오랜 기간에 걸친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선택 등에 의해 인간까지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교육적 상황은 과거의 잔인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는 잠재성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한다.

미국은 1960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인간 진화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3년 미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미국의 가장 격동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 사회에 성경적 기준이 배제되고 진화론적 사고에 기초를 둔 세속적 기준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안에서도 직접적인 변화를 주었다. 진화론적 교육으로 인해 학우들이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진화론적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경쟁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불안한 장소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옆의 두 그래프는 미국 학교 총기 사망자와 13-18세 살인 체포에 대한 변화이다. 두 그래프 역시 1960년 초부터 그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훨씬 가파르다. 이는 학교 총기사건과 진화론 교육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학원 총기사건에 대한 뉴스는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각 중고등학교 앞에 배치된 경찰차를 보는 것은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니며, 보는 이로 하여금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한다.

미국 주요 학교 총기 사건들 중 가장 큰 충격은 1999년에 콜럼비아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학생이 자신의 학우들에게 직접 총기를 난사한 첫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일으킨 두 학생이 나치즘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건을 일으킨 날짜가 히틀러 생일인 4월 20일이라는 것도 이런 이유를 말해준다. 또한 사건 당시 이들이 입고 있던 T 셔츠는 'Wrath(격노), 'Natural Selection(자연선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이 적어도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주요 학교 총기사건

Texas 대학 (1966년, 텍사스 주)	14명 사망, 31명 부상. 휘트먼(Charles Whitman)은 어머니와 아내를 칼로 살해한 후에,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 건물 위에 올라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건은 미국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량 살상 사건이었다.
Columbine 고등학교 (1999년, 콜로라도 주)	학생 12명, 교사 1명 사망, 23명 부상. 해리스(Eric Harris)와 클리볼드(Dylan Klebold)는 자신들을 학대했던 학우들에 대한 복수로 총기 난사 후 자살했다. 자신이 다니던 학우들을 대량 살상한 첫 사건이다.
Red Lake 고등학교 (2005, 미네소타 주)	9명 사망. 위이즈 (Jeffrey Weise)는 경찰관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경찰 무기를 소지한 후 경찰차를 몰고 학교를 향해 돌진, 경비원과 교사와 그리고 5명의 학생을 살해한 후 자살했다.
Virginia 공과대학 (2007년, 버지니아 주)	31명 사망, 17명 부상. 한국인 2세 조승희 학생은 사건 발생 2년 전 여학생을 혐오하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심한 불안 장애를 겪고 있었고 총기 난사 후 자살했다.
Sandy Hook 초등학교 (2012년, 코네티컷 주)	학생 20명, 직원 6명 사망. 우울증, 불안, 강박관념을 겪고 있던 20세 남성이 어머니를 죽이고 총을 훔친 후 살상.
Umpqua Community 대학 (2015년, 오리건 주)	8명의 교수와 학생 사망, 8명 부상. 학생인 하퍼 머서 (Chris Harper-Mercer)가 조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후 자살했다.
Stoneman Douglas 고등학교 (2018, 플로리다 주)	3명의 교사와 14명 학생 사망, 15명 부상. 총기를 난사했던 크루즈(Nikolas Cruz)는 자신이 전문 학교 수사가 될 의도를 소셜 미디어에 먼저 올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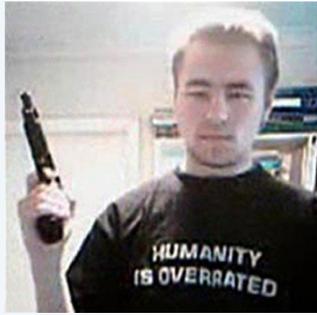
단지 미국 뿐 만이 아니다.

2007년 핀란드의 요켈라(Jokela) 고등학교에서 총기사건으로 8명이 죽고 총격을 가한 학생이 자살했다.

이 가해 학생이 마지막 남긴 말이다.

“나의 일을 위해 싸우고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인류의 불명예와 자연선택의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

요켈라 고등학교 총기사건 (핀란드, 2007)



연선택과 적자생존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어떤 이들은 총기 사건을 너무 진화론 교육과 연관시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래프와 위의 사건 정황은 진화론 교육의 결과로 인한 내면적인 신념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핀란드는 다른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국가였다. 핀란드 국기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도 진화론 교육을 선택하였고, 결국 성경을 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옳은 지’ 그 최종적 권위를 진화론적 사고에 두게 되었다.



Columbine 고등학교 총기사건(미국, 1999)

서두에 언급했듯이 경쟁의 사고가 반드시 진화론이 이 세상에 나온 후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시 51:5) 우리 안에 늘 잠재해왔다. 그러나 진화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 경쟁의 원리가 정당화되고 증폭되었으며,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더욱 보편화되었다.

총기를 난사한 학생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단으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이 폭력과 죽음이 수십억 년에 걸쳐 우연한 과정으로 자연적으로 변화된 진화 메커니즘이라고 배웠고, 이를 실행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서양 교육 시스템의 안타까운 결과이다.

학교 총기 사건 뉴스를 전하며 앵커들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달레마로 마무리한다. 어떤 경우 가해자 학생의 심리학적 분석을 하기도 한다. 단지 뉴스 앵커만이 아니다. 캠퍼스에서 흐느끼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알고 있다. 바로 ‘성경’이다. 이런 상황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고 울부짖는 사람들과, 며칠 후 이들을 추모하는 장면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은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알고 있다. 바로 ‘성경’이다. 이런 상황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믿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과학으로 포장된 그릇된 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성경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적인 원인이며, 교회를 떠나므로 인해 진리를 들을 수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에 와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 할 곳은 교회 외엔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믿긴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을 수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진화 과정인 경쟁, 자연선택, 멸종을 인정하셨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포함한 타협이론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상황을 수십억 년 동안 허락하신 분이려면,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교회만큼은 반드시 ‘죄 있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 죄 지은 이후의 악화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이 악한 상황의 근본인 죄를 사해주러 오신 창조주 예수님, 또한 그분을 통해 죄 없는 천국 소망이 적혀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유일한 해답인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자 예수님(요 5:39)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www.His Ark.com / hisark@gmail.com

ACT News

창조과학탐사

지난 10월 15-21일 광주성암교회(담임목사 박광순)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교회로서는 첫 창탐이며, 지난 3월 이재만 선교사가 성암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 버스에서 이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얼마나 진화론에 갇혀 있는 지 확인하였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의 가시덤불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것에 이어 성경의 사실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018년 창조과학탐사 마무리

지난 2018년 역시 창조과학선교회의 일정은 창조과학탐사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1월 첫 주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를 시작으로 총 31번의 창탐이 출발했습니다. 이 중에 28번은 한어로, 3번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를 주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창조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상이 진화론으로 가득 찼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진화론이 깊숙이 침투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참가자 자신들도 창탐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창탐에 온 것이 주님의 인도로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도 매년 그러듯이 1월 첫 주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로 시작됩니다. 벌써 한 해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의 부담이 아니라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년도 성경과 그 증거들을 분명히 전하는 창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자가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서는 감격을 맛보는 창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창탐을 인도할 견고하고 헌신된 사역자가 등장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뉴저지 뉴욕 교회 세미나

지난 10월 27일 이재만 회장은 뉴저지 초대교회(담임목사 박형은)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지질시대표의 탄생”과 “타협의 거센 바람”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질시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임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악영향도 이해했습니다. 또한 이 지질시대표를 사실로 받아

유학생 창탐





광주성암교회

들었던 사회적 결과뿐 아니라 이에 따라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여러 타협이론의 발생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초대교회에서는 지난 여름 영어권 창탐을 가졌는데, 그때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한어권과 영어권 창탐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인투교회

지난 10월 28일 뉴욕 맨하튼에 소재한 인투교회(담임목사 심상현)에서 이재만 회장과 Bill Hoesch는 한어권과 영어권 주일 예배를 각각 인도했습니다. Bill Hoesch는 성경과 과학에 대한 기본적 내용으로, 이재만 회장은 율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디자인과 복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인투교회는 주로 젊은 층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 창탐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만 한국 방문

이재만 회장은 11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단체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성경이 왜 독특한 책일까?(2)

우리는 성경이 독특한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증명된 정확성

성경이 독특한 책이라는 것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증명된 정확성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셨다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듯이, 성경은 그 역사적 정확성에 있어서 독보적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였으며 다른 누구보다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 복음 1:1-4).

누가는 자신을 역사가라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 일류 역사가로써 알려져 있



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이며 스코틀랜드의 애버딘 대학의 인문학 교수이신 윌리엄 램지 경은 고대 소아시아의 역사와 지리의 20세기 최고 전문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한 사람인 그는, 한때 성경에 대하여 대단히 비평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의사 누가의 글을 고려해 보게 되었고, 오랜 연구 후에 그는 누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 하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누가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한 후, 그는 “누가, 사랑 받은 의사!”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램지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책들 중 하나에서, 누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누가가 기록한 역사가 그 신뢰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는 견해를 취합니다. 당신은 누가의 글을 다른 모든 역사가들보다 더 심하게 검증하려 시도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의 글은 가장 정밀한 조사와 힘든 대접을 견뎌낼 것입니다. 누가는 일류 역사가입니다. 이 저자는 역사가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의 하나로 여겨져야 합니다.”

램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한 예는,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한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전 성경 비평가들은 예수님은 기원전 4년, 헤롯이 죽기 이전에 태어나셨으며, 구레노는 기원후 8-10 동안 총독을 역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러한 비평가들은 누가에 의한 기록은 부정확하며, 그를 신뢰할 만한 역사가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오류”는, 윌리엄 램지 경과 다른 고고학자들이 구레노가 두 번 총독을 역임했다는 사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 두 번째)을 알아냄으로써 해명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 흠잡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사실을 갖기 이전에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 왔습니다.



성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오랫동안 사용된 또 하나의 예는 벨사살 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큰 연회를 준비할 때, 신비스러운 글씨가 벽에 쓰여지는 것을 목

격한 왕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다니엘 6). 하나님은 그에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그의 왕국이 나뉘어지고 메데스와 페르시아에게 정복될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비평가들은, 고대의 세속적 역사에 따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닌, 나보니두스라고 불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날조된 것이라

고 주장하며 비웃었습니다. 많은 세기 동안, 역사적 기록들은 명백하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어느 날 어떤 고고학자들이 한 원기둥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 원기둥에는 벨사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고고학자들은 벨사살 왕에 대한 더욱 더 많은 기록들을 찾아냈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왕과 함께 다스렸던 나보니두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벨사살의 아버지였고, 그들은 섭정의 형태로 함께 다스렸습니다. 이 사실은 벨사살 왕이 만약 다니엘이 벽의 글씨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 5:7). 그러나 근대 고고학이 벨사살에 관한 원기둥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그것이 성경을 덜 진실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도 진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뿐입니다.

자유주의적 비평가들이 성경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예는 히타이트 문화에 관한 반복된 언급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히타이트(헷 족속) 사람들에 관하여 48번 언급됩니다. 1875년까지, 알려진 모든 고대문서의 기록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단 하나의 언급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876년 조지 스미스가 소아시아의 제라비스라 불린 지역에서 한 기념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다가 거대한 고대제국 히타이트를 발굴하며 바뀌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현재 히타이트를 이집트와 앗시리아와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는 히타이트만을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단지 실존인물일 뿐 아니라, 그들의 제국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들 중 하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시금 성경의 비평가들이 틀렸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1806년, 프랑스 과학 연구소는 80개 이상의 성경의 역사적/고고학적/지리학적으로 부정확한 것들을 열거 했습니다. 1940년까지, 오히려 그 리스트에서 열거된 모든 혐의들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고, 오늘날 그들이 지적한 것들 중 단 하나도 부정확한 것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실수없이 과거를 기록하신,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확합니다.

Ken Ham and Bodie Hodge, Answers in Genesis / 번역 : 이충현

● 본 글은 How do we know Bible true II (Master Books) 중 Chapter.5 Why is the Bible unique? 에 대한 연재입니다.

MRI를 발명한 창조과학자, 레이몬드 다마디안 박사



레이몬드 다마디안 박사는 “MRI(자기공명영상)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MRI는 소위 “20세기의 의료계에서 이루어낸 위대한 돌파구 중 하나”라고 널리 인정받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유지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마디안 박사는 뉴욕주립대학교 남부의료센터(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Downstate Medical Center)의 교수로 재직을 하였으며 그가 MRI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그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그가 저술한 MRI에 관한 논문은 여러 저명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인정하는 권위있는 과학저널의 표지논문으로 실리기도 하였다.

오늘날 최초의 의료진단영상장치인 MRI는 세계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거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MRI는 병에 걸리거나 손상된 조직을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감지하고 찾아낼 수 있으며 다른 어떠한 의료영상 기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장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대략 10억 회 이상의 스캔이 실행되었으며, 매년 6천만 회 이상의 의료영상진단이 이 MRI라는 장비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창조과학자, 그리고 다마디안 박사의 신앙

1957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일어난 빌리 그래함(Billy Graham)목사의 부흥운동을 통해 다마디안 박사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으며 과학과 신학을 넘나드는, 특히 창조와 진화의 질문에 대한 광범위한 그의 학식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였다. 그는 또한 다윈주의(Darwinism)의 오류와 잘못된 생각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

으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다마디안 박사는 활발히 창조과학을 지지해오고 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새로워진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으로부터 떠나있을 때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한낱 그저 과학자인 한 사람이 그의 과학자로서의 목적인 모든 자연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진리의 발견을 그 진리의 저자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없이 어찌 이루어 낼 수 있었겠는가? 나에게 과학에서의 진정한 전율은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작디작은 한 귀퉁이를 알아가는 것이며 그 알게 된 진리로 인한 영광을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곧 다마디안 박사가 마주하게 된 난제는 “공격적인 세속적인 환경 속의 학계와 과학이었으며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할 때 실험과정을 왜곡하고 어떻게 창조가 과학에 자리잡게 되었는가 이해했다고 스스로 되뇌이며, 결국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뛰어넘어가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한다. 뒤이어 그는 이렇게 서술한다, “이러한 현실은 무신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 현실은 나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다마디안 박사는 그가 성경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이야기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다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놀랍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울 정도로 그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나의 세속적인 이해와는 전혀 반대하는 것이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성경이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창조에 관한 성경적인 무오성을 연구하는 중에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 다마디안 박사의 글에 의한 그가 부딪힌 또 다른 하나의 난제는, “몇몇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특정한 몇몇 성경 구절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들의 편의대로 과학적인 용어들을 가져다 남용하고 대부분의 창조와 기적에 대한 주장은 그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마디안 박사는 그의 종교적인 신념을 굳게 지녔으며, 그의 저서인, 거저받은 마음(Gifted Mind)에서 자세하게 다루듯이 특히 기원에 관한 그의 결론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현재 그는 활발한 창조과학자로서, 그는 ICR(Institution for Creation Research)과 AIG 창조과학박물관(Answers In Genesis Creation Museum)과 같은 여러 창조과학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과학은 결국 다윈주의로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과학자들과는 달리 다마디안 박사는 과학은 우리를 결국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발 앞으로 이끌어낸다고 깨달은 많은 창조과학자들 중 한 사람인 것이다.

By Jerry Bergman, PH.D. / 번역 : 이충현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다음세대의 믿음을 위해 섬기며 미국과 같은 전적을 밟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이 전달되도록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더 쓰임 받도록 창조과학선교회와 선교사님을 중보하며 동행합니다.

-김승완<수원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땅을 보게 하시고 가족 모두 이곳에 함께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더 자신 있게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김수연<대전온누리교회>

청소년 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부터 대학교를 다니고 노는 게 좋아 예수님을 잊고 살던 지금, 미국을 와서 창조에 대한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보고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며 미국에 와서 저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고 사랑을 느끼고 갑니다. -이봄<대전온누리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로 인해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많고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도 많았고 책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투어를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지명<대전온누리교회>

40년 신앙생활에 한번도 듣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들을 보게 되었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명확히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4학년, 5학년이 된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더 좋았습니다. 이제는 미지근했던 저의 신앙이 변화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음수진<대전온누리교회>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성경의 내용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진화론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과 유신론적 진화론의 더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다.

-안광국<남양주온누리교회>

이번 탐사를 통해 내가 믿는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는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차세대 자녀들이 진화론에 물들기 전에 성경이 사실임을 바로 전하는 사역에 힘쓰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김은혜<대전온누리교회>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제가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하고 변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준호<서빙고온누리교회>

2018/2019 ACT Schedule

12/5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7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10-12	창조과학탐사(하와이열방대학), 이재만
12/22-2/9	제 10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20차 유학생), 이재만
1/18-1/24	창조과학탐사 (대구성은교회, 행복사랑교회), 이재만
1/25-1/27	창조과학세미나 (LA충현선교교회), 이재만
2/18-2/2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